

'고흥유자에이드'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음료시장 공략 나선다

고흥유자 원액으로 만든 유자에이드 2만 4천 팩 프랑스 1차 수출 상차



고흥군은 24일 엔자임팜(대표 김주호)에서 고흥 유자에이드 프랑스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영민 군수가 이끈 '고흥군 농수산물 유통 수출개척단'이 지난 4월 초 프랑

스 파리 출장을 통해 총 500만 달러(한화 68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 체결에 따른 첫 상차이다.

수출길에 오른 상품은 엔자임팜의 고흥유자 원액으로 만든 유자에이드로 2만 4천 팩(230ml)이며, 이번 1차 수출 상차를 기점으로

유자 마말레이드, 유자 곡물당, 고흥 유자차, 고흥 김 등을 계속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K푸드 열풍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시장 특수에 맞춰 현지인 입맛에 맞는 유자 관련 신상품 개발 출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과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노력해 세계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가 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한편, 농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품질 고흥유자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유럽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고흥 농수산물 해외 시장 다각화 통해 고흥 농수산 가공품의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 길놀이' 3000명 참여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통제영 길놀이'에 역대 최대 인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23일 거북선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통제영 길놀이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도 해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정해 승리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통제영 길놀이는 축제 첫날 오후 6시 여수시 민회관에서 출발해 중앙동 이순신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군악 연주와 퍼레이드, 여수 신월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이순신 장군의 전통 복장을 하고 행진한다.

장군이 앞장서 기마와 수군행렬을 이끌고 거북선, 판옥선, 포사선, 옥수레, 영거, 진해루에서의 군사회의 장면 등을 재현하는 차량이

학생·일반시민 등 역대 최대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 등 폐지

뒤따른다. 왜적선(고바야)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작품들이 출연한다.

통제영 길놀이에는 3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선 중기의 복장을 입고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감동과 웅장함을 선사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제위원회는 설명했다.

축제위원회 전제민 상임이사는 "통제영 길놀이에 출연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섭외한 3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응도가 떨어진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는 과거에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년이순신 선발대회 ▲용졸다리기 ▲소동졸놀이 ▲시조경향 ▲한시백일장 등 일부 프로그램을 축제에서 제외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4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개막식 개최

내일 오후 7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2024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막식은 청소년 발레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축사, 아고라 순천 히스토리 영상 상영, 우수팀 개막공연, 피날레 합동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K-디즈니 순천'에 걸맞게 아고라 순천 공연팀이 준비한 애니메이션 OST 공연을 비롯하여 아고라 순천의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개막식 공연팀이 함께 준비한 피날레 공연을 선보이며 화합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공연팀은 지난 3월 진행된 오디션에서 장르별 최고 득점을 받은 팀으로, 대중음악 4팀(비바살롱, 순천시티즌빅밴드, 신나라밴드, 오진용색소폰) 국악 2팀(가얏고아미, 전통예술단 예향), 무용·댄스 2팀(디디예술단, 황경하), 양악 2팀(조이플 앙상블, 소프라노 차유경)으로 구성됐다.

올해 아고라 순천 공연팀은 총 100팀이며 개막식 이후인 오는 5월 4일부터 낙안읍성,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시 일원에서 '아고라 순천, 예술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예술인, 그리고 관광객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2024 아고라 순천은 문화예술 사각지대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아고라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며, "순천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아고라 순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술진흥팀(061-746-2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보성녹차' 2024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지역명품브랜드 부문 10년 연속 선정

보성군은 '보성녹차'가 '2024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명품브랜드 부문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성녹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명성을 쌓은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전략, 체계, 관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성과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보성군은 2009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미국(USA), 유럽(EU), 일본(JAS)에서 국제유기인증을 획득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또한, 녹차와 연계한 기업유치,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 2014년, 2019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고, 2018년에는 '보성전통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어 역사성과 우수성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가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도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